

CJ인베스트먼트 출범...스타트업에 4000억 투자

오너일가 개인 소유 회사 벤처캐피탈 인수
금산분리 완화로 CJ 정식 계열사로 재출범
문화·플랫폼·웰니스·지속가능성 적극 투자
"스타트업 발굴·육성해 사업모델 혁신 선도"



CJ가 오너일가 개인 소유 회사인 씨앤아이리저 산업의 벤처캐피탈(VC)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이하 타임와이즈)를 인수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지됐던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허용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인수로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 부당지원 논란 불식과 그룹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스타트업 투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복안이다.

●일감 부당지원 논란 조기 해소

CJ그룹의 지주사인 CJ주식회사는 5일 씨앤아이리저 자산으로부터 타임와이즈 지분 100%를 221억 원에 인수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설립한다고 공식했다. 타임와이즈는 CJ의 스타트업 투자를 맡아온 계열사다. 2000년 드림디스커버리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2003년 CJ창업투자, 2014년 타임와이즈로 사명을 바꾸며 식품, 바이오, 정보통신,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해 왔다.

2011년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며 씨앤아이리저산업에



CJ가 기업형 벤처캐피탈 CJ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통해 4대 미래성장엔진 부문에서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한다. 이재현 CJ 회장(왼쪽)과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다. 사진제공 CJ

매각했지만, 지난해 말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다시 CJ의 정식 계열사로 재출범하게 됐다.

이번 인수는 오너일가의 개인 소유 회사와의 거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씨앤아이리저산업은 이재현 CJ 회장 아들인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가 51%의 지분을 가져 최대 주주이고, 딸 이경후 CJ EN M 경영리더도 2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나머지 지분도 친족들 소유라 사실상 오너일가가 100% 지배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타임와이즈는 주요 사업에 CJ 계열사들이 참여하면서 내부거래 및 일감 부당지원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인수를 통해 오너일가의 개인 소유 회사와 그룹 계열사 간 연결고리를 끊고, 관련 리스

크도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CJ인베스트먼트, 전문 투자회사로 도약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사명은 CJ인베스트먼트로 정했다. 그룹의 정식 계열사이자 CVC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는 전문 투자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CJ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향후 5년간 4000억 원을 신규 출자하고,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통해 문화(Culture), 플랫폼(Platform), 웰니스(치유·Wellness),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4대 미래성장엔진 부문에서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한다.

CJ는 지난해 11월 중기비전을 통해 미래 혁신성장 전략을 밝힌 후, 유망 스타트업 지분투자자와 협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CJ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잠재력을 갖춘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망 벤처 및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업역량 강화를 돕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CJ인베스트먼트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기능과 결합하는 게 대표 사례다.

회사 측은 "산업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더 효과적으로 신규 사업모델과 혁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그룹 CVC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CJ인베스트먼트는 잠재력있는 스타트업을 초기에 발굴·육성해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벤처캐피탈로 도약하는 동시에 그룹의 사업모델 혁신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맥도날드 '창녕 갈릭 버거'. 사진제공 맥도날드

맥도날드, 고객 성원에 '창녕 갈릭 버거' 재출시 고객 의견 반영한 '디카페인 아이스크림 라떼'도 선보



▲맥도날드 '디카페인 아이스크림 라떼'

맥도날드가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한국의 맛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해 첫선을 보인 '창녕 갈릭 버거'를 4일 다시 선보였다. 회사 측은 "지난해 한 달 판매 기간 동안 약 158만 개의 판매고를 기록했고, 판매 종료 이후에도 출시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며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재출시를 결정했다"고 했다.

경남 창녕의 국내산 햇마늘을 담았다. 마늘 6쪽을 통째로 갈아 넣은 마늘 토핑, 마늘과 올리브유가 섞인 아이올리 소스를 더해 창녕 마늘 특유의 감칠맛과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또 같은 날 '디카페인 아이스크림 라떼'도 내놓았다. 기존 카페라떼에 설탕이 아이스크림을 더해 6월 선보인 '아이스크림 라떼'의 디카페인 버전이다. 아이스크림 라떼 특유의 달콤한 맛과 진한 풍미를 카페인 부담 없이 그대로 즐길 수 있다. 디카페인으로도 해당 메뉴를 즐기고 싶어 하는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정욱 기자

강원랜드, 투숙객과 함께 플라스틱 재활용 캠페인

강원랜드는 8월 한 달간 하이원리조트 객실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여기 다시 놀다' 캠페인을 진행한다. 투숙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즉시 대체가 어려운 플라스틱 음료 뚜껑, 일회용 생수병 등을 퇴실시 분리해 수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호텔 식음·조리업장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도 캠페인 참여를 통해 수거, 재활용할 예정이다. 수거한 플라스틱은 9월 리조트에 필요한 인테리어 소품, 가구, 섬유제품 등으로 재자원화해서 전시한다.

편집 | 신하니 기자 myh@donga.com

매일유업, 외식사업 다시 시동... '더 키친 일보르노' 역삼 센터필드점 연다

신선한 식재료로 정통 나폴리 요리 선보
100여 석 규모...런치타임은 뷔페로 운영

매일유업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식사업에 다시 시동을 건다.

지주사 매일홀딩스의 자회사인 외식전문기업 엠스씨는 9일 서울 역삼 센터필드에 이탈리아 레스토랑 '더 키친 일보르노'의 신규 매장을 오픈한다. 일보르노는 이탈리아어로 '화덕'을 의미한다. 나폴리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남부 스타일의 파스타와 화덕피자 등을 선보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새롭게 선보였다. 전신은 13년간 운영해온 '더 키친 살바토레 쿠모'다.

역삼 센터필드점은 서울 광화문점과 청담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대구점, 부산 센텀시티점에 이은 6번째 매장이자, 풍요로운 자연환경에서 얻은 신선한 식재료로 본연의 맛을 담아내는 정통 나폴리 요리에 모던함을 더한 프리미엄 메뉴를 선보인다.



'더 키친 일보르노' 역삼 센터필드점 내·외부 전경. 사진제공 매일유업

직장인이 많은 서울 역삼동 인근에 위치한 만큼 런치타임에는 나폴리 요리를 보다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도록 뷔페로 운영한다. 런치 뷔페는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샐러드와 피자 등 정통 나폴리 요리로 구성한다. 100여 석 규모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편안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가족모임 및 비즈니스 미팅과 같이 소규모 모임을 위한 개별룸도 마련했다. 김용철 엠스씨 대표는 "편안한 분위기, 높은 품질의 요리, 친절한 서비스로 센터필드의 핫 플레이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엠스씨가 6월 부산 영도 피아크에 선보인 중식당 크리스탈 제이드의 새 콘셉트인 '홍콩 키친'도 인기다. 홍콩의 맛과 감성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홍콩식 대표 딤섬, 현지식 메뉴와 함께 이국적인 인테리어를 앞세워 부산 고객에게 새로운 외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주문 즉시 제조되는 5가지 수제 딤섬을 대형 바스켓에 담아낸 '딤섬 점보 플래터'와 홍콩식 에프터디를 재현한 '홍콩식 암차세트' 등 신규 콘셉트에 걸맞게 엄선한 메뉴도 눈길을 끈다.

정정욱 기자

Century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우와~ 센추리냉난방기 사셨네요. 요즘 인기인데 정말 좋아요? 난방부로 구매했지

당연하지 센추리 냉난방기는 45년동안 전문업체인 냉동공조기술사로 사무·업소용 냉난방기 전문회사라고 유지비 절감에 냉방·난방 절되고 구매조건도 너무 좋아. 난방부로 구매했지

사장님이 구매하신 장기 36개월 할부는 초기비용 부담없이 무보증 무담보로 사업자 등록증만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특히 업소용은 유지비와 냉방·난방능력과 구입조이 포인트입니다. 센추리는 이 4가지와 체계적인 A/S시스템과 사후관리까지 해드립니다. 저희 에너지 설계 전문가들이 무료로 직접 방문해서 맞춤형 장원하게, 가장 유리한 구입조건, 설치조건, 응급대응 보장까지 속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역사-센추리 냉난방기가 최고구나- 좋은 조건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쓰시고 확실한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 구입시 꼭 확인하세요!!

전기세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 냉방·난방 평수가 똑같은지? /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회사인지??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할납부가 되는지? /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중고제품 보상지민
나도 당당 설치해주시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